

# 죽녹원 대나무 죽어간다

전체 30% 이상생장 '빗자루병' 발병

뚜렷한 원인 못찾아… 방제대책 비상

담양 죽녹원 대숲에 일명 '빗자루병'으로 불리는 병해가 발생했으나, 담양군 등 관계기관은 뚜렷한 방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관광명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죽녹원 대숲 16㏊(5천300여m<sup>2</sup>(5만여평)) 중 3분의 1에 달하는 왕대 수종에 빗자루 병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

군민 김모(46·담양읍)씨는 "3년 전부터 빗자루 병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면서 "가장 심상해야 할 시기

하얗게 밀라죽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박모(45·담양읍)씨는 "토양을 통해 전염되는 것을 알려진 빗자루 병에 걸리면 죽순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전염속도도 빨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병든 대나무는 빨리 제거해 불태우고, 살충제를 살포해 매개곤충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현재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제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간벌작업을 통해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풍 및 영양분 공급을 위한 간벌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빗자루병=대나무 병해 가운데 가장 흔한 전염병으로 '도깨비집병'으로도 불린다. 이 병에 걸리면 이상생장 때문에 마디 수가 많은 덩굴 모양의 가느다란 가지가 생긴다. 결국 잎이 떨어지고 동화작용을 하지 못해 영양부족으로 말라 죽어간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추억의 밀사리' 체험

구례 광의면 특품사업단 우리밀 기공공장은 23일 광의면 일원 밀단지에서 '추억의 밀사리'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밀밭걷기를 비롯해 밀사리, 밀가공품 전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 '희망의 시작' 땅끝서 출발하세요

해남 국토순례 대장정 참여자 모집

해남군이 '희망의 시작점' 땅끝에서 출발하는 국토순례 대장정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해남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아 7월 26일 땅끝에서 대대적인 국토순례 출정식을 개최한다.

국토순례 대장정에 나서는 참여자는 출정식 전날인 7월 25일 오후 캠핑장에서 숙박한 후 이튿날 아침식사, 땅끝기념 메달, 생수 등 생필품을 제공 받으며 기념식수도 할 계획이다.

국토순례 참여자는 도보와 자전거

를 이용하는 팀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마을은 과거의 아픈 흔적과 절망을 씻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희망의 장소로 널리 알려진 곳"이라며 "신혼부부와 수험생,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많은 이들이 희망의 시작점 해남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땅끝 해남에서는 매년 100여 팀이 국토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KBS 1박2일 "플래닛" 활동

코끼리스, 배파마운, 뷔리와원, 선녀와 나무꾼, 황금연드, 출마제작, 힐링인형 밀사리



구례 영모재 등 3건

### 향토문화유산 지정

구례군은 최근 향토문화유산 심의회를 열고 상모재 등 3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공신 손인필 비각(25호·구례읍 봉북리)을 비롯 ▲상모재(26호·용방면 용강리) ▲영모재(27호·용방면 용강리)〈사진〉 등 3점이다.

공신 손인필 비각은 정유재란시 석주성과 노랑해전에서 분전하다 순절한 손순홍의 충절을 기리고자 1964년에 후손들이 세운 비이다.

상모재는 전남도 민선 도평의원을 역임한 우상 리근호공이 정곡으로 사용하기 위해 1912년에 세운 근대 건축물이다.

영모재는 세종대왕 넛째 왕자 임영대군의 증손자인 명선대부 윤안도정 공리원과 그의 후손을 추모하기 위해 1878년에 건립한 제각이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통해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풍 및 영양분 공급을 위한 간벌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 목포항 물동량 다시 증가세로

### 4개월새 326만t… 차량·원목 등 수출입 화물 늘어

연초 물동량이 크게 줄었던 목포항 물동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지난 1~4월 목포항 물동량이 326만 9천t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정도 증가하는 등 월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목포항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재와 시멘트·모래 등

건설자재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차량 및 원목 등 수출·입 화물이 꾸준하게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화물별로는 철재류와 골재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 74% 수준에 머물러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자동차 화물은 40만 5천t을 처리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김삼열 청장은 "현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목포항 물동량이 예년 수준에 균형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포트 세일(Port Sales) 등 항만 홍보를 강화해 신규화물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항 물동량은 2007년 1천만t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난 1~2월 143만 7천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3%에 그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산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해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효과와 속취해소에 특효인 아스파라간산이 종나물의 50배를 함유하고 있다.

진씨는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무농약 인증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이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다년생 작물인 아스파라거스는 인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강진 아스파라거스 日수출길 열렸다

#### 농기센터 무농약 인증

강진군의 새로운 소득 작물인 '아스파라거스'가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은 강진산 아스파라거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인증을 획득, 친환경 시장 및 일본 수출길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무농약 인증을 획득한 도암면 진현

// 이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 //

### 나주공무원 사랑의 헌혈증서 전달

#### 백혈병 직원에 180장

백혈병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료 직원을 위해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 180여 장의 헌혈증서를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나주시 직원들은 지난 22일 금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조선대 병원에 입원중인 시청 청원경찰 고

순석(57)씨를 위문, 헌혈증서와 금일봉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고씨는 최근 '금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입원, 장기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하게 됐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동안 모아뒀던 헌혈증서를 흔쾌히 내놓아 전달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전남농협-삼성의료봉사단 무료 진료

#### 보성군 농업인 대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삼성 서울병원 삼성 의료봉사단과 22~24일 보성군 득량면 예당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보성군 관내 농업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진료활동에는 의료진 80여 명이 참여해 소화기과, 순환기과,

호흡기과, 정형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 다양한 항목을 진료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



**7월 죽전·제주도 여행**

**KBS 1박2일 "플래닛" 활동**

코끼리스, 배파마운, 뷔리와원, 선녀와 나무꾼, 황금연드, 출마제작, 힐링인형 밀사리



**7월 죽전·제주도 여행**

- 세종특별자치시·제주도 여행

여기서나 할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일정 1. 죽전, 출마제작 219,000원
- 일정 2. 2009. 7. 14~07.14 219,000원

세종과 다양한 제주도 여행

● 죽전 청정한 자연을 즐기는 죽전 여행

● 제주도에서 즐기는 제주 여행

● 제주도에서 즐기는 제주 여행